



2019년 4월 14일(제924호) 주님 수반 성지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전에 입당하기 전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내용과 수난 받고 죽음을 겪으셨던 내용입니다. 두 개의 사건을 기념하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며 저 세상의 왕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태도는 하느님께서 증명하신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전자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의 왕위 등극 장면을 시사하며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의 왕국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해줄 현실적인 메시아(구원자)로 이해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줄 현세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후자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성찬례를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참된 사랑을 전하시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임을 가르치시며, 제자의 배반을 알면서도 포용해주시고, 죄가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보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참된 왕의 모습, 인간이 구원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다른 이들이 원했던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희생과 사랑 속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왕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현세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과도 다를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말고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희생과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가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물욕과 현세적 영광, 권위와 명예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며,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하느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정세진(요셉) 신부
명림(15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이사 50,4-7

회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2 독 시 필리 2,6-11

복음 권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 음 루카 22,14-23,56

영성제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심이기 바르바라



성인명: 심이기 바르바라 (沈阿只 Barbara)
 신분: 통정 순교자
 활동연도: 1783-18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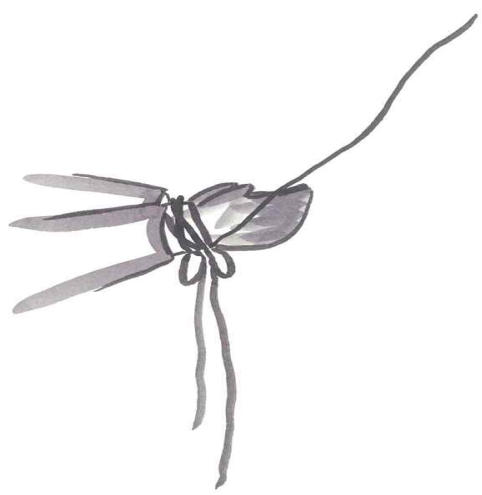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 태생인 심아기(沈阿只) 바르바라는 오빠 심낙훈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한 뒤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성인들의 모범에 감동하여 하느님께 동정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으며, 이후로는 조용히 집 안에서만 지내면서 모범적으로 교회의 법규를 지켜나갔다.

1801년의 신유박해로 오빠가 체포되자, 심 바르바라는 포졸들이 얼마 안 있어 자신에게도 찾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그들을 기다렸다. 마침내 포졸들이 들이닥쳐 체포하려고 하자,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천주의 성스러운 뜻에 순종하도록 놓아두십시오.”라고 말한 뒤, 스스로 그들 앞으로 나아가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런 다음 동요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서 한양으로 끌려갔다. 이후 심아기 바르바라는 포도청에서 배교를 강요당하며 모진 형벌을 받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계속되는 형벌을 견디어 내지 못하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초로, 당시 그녀의 나이는 18세였다.

복 **음** **목**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수난의 길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님께서
 그래
 가셨습니다.

그 뒤를 조용히,
 따르겠습니다.

상화이야기

Flevit Super Illam(그는 우셨다)



엔리키 시모니, 1892년 제작

캔버스 위 유화, 296x550cm / 밀리기 미술관, 스페인

가로 3m, 세로 6여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그림은 복음서 중에서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구절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루카 19,41-42)

아직 눈부시게 아름다운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떠오르는 해인지, 석양인지 모호하다)과 오른편에 희고 거대 하면서 또한 굳건한 성벽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인다. 이 도시가 멀리 바라보이는 언덕에 계신 예수님은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모습을 하고 계시며, 주위의 군중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찬양하며 떠받드는 군중들이 자신을 배신하리라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도 알고 계셨기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날은 분명히 해가 뜨고 지던, 여느 날과 다름없던 평범한 하루였을 수도 있으나, 이 그림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이 우시는 순간에 멈춰져 각인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스치는 순간이 켜켜이 쌓여 삶을 이룬다고들 말하는데, 우리는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솔지 유봉현 신부

◆ 교구장 동정

- 진군(6군단) 성당 사목방문
 때·곳: 4월 14일(주일)
- 성유 축성 미사
 때·곳: 4월 16일(화)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때·곳: 4월 18일(목) 2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때·곳: 4월 19일(금) 15: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수난 예식
 때·곳: 4월 19일(금) 2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예수 부활 대축일 성야 미사
 때·곳: 4월 20일(토) 20: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